

향기로운 예물

☞ **십일조헌금** 기입 085-056206-04-030(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김제호 김경자 김규찬(최효자) 김기택(배숙자) 김미희 김순녀 김경자 김종선(박영숙) 김준구(이소은) 김진희 김한나 김형국(이오순) 박부중(최귀남) 박순중(이승애) 박혜진(장동민) 서진화(최봉순) 송형기(김현숙) 윤 승 윤영준(박진숙) 윤조훈 이영희(윤영원) 이윤옥 이항교 장윤주(김현진) 정기성(심순옥) 정육순 최정규(김미영) 하세련

☞ **선교헌금** 기입 085-056206-04-086(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김제호(최지은) 김경자 김규찬(최효자) 김기택(배숙자) 김병을(이영숙) 김순녀 김경자 송다해 윤 승 이영희(윤영원) 이미자(김현성) 이승애(박순중) 이오순(김형국) 정기성(심순옥) 하세련 한나여전도회

☞ **감사헌금** 기입 085-056206-04-047(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김제호(최지은) 김경엽(손정아) 김경자 김병을(이영숙) 김순녀 김동욱(박애순) 김춘화 김현옥 문경리 박부중(최귀남) 손명화(유호근) 여운희 윤대규(심선미) 윤영준(박진숙) 윤경자(최서현) 이경자(주경덕) 이미자 이복현(지상진) 이종운 전병구(이인숙) 채명엽 무 영

☞ **일천번제헌금**

이진우 강은미 김경엽 김영숙 김민성 김민혁 김준구 김해란 박민서 박서광 박준홍 박희영 백경자 송백현 심순옥 안지영 양영옥 양일석 이강우 이경자 이기자 이노을 이미자 이상희 이슬아 이소은 이승애 이오순 이육남 전병구 전영선 전지선 정승현 정혜지 주성탁 최귀남 최선미

☞ **월정헌금**

주간 성경연구

23주 * 새벽기도회 본문입니다 *			
주 일	시편 6편 1절 ~ 10절		
월요일	시편 7편 1절 ~ 17절	목요일	시편 9편 11절 ~ 20절
화요일	시편 8편 1절 ~ 9절	금요일	시편 10편 1절 ~ 18절
수요일	시편 9편 1절 ~ 10절	토요일	시편 11편 1절 ~ 7절

원로장로	이태일 정기성			
시무장로	윤조훈 강영성 김병을 최기훈 배경철 임만순 박권제 최서현 윤영준			
은퇴장로	방현욱 장명원 윤영원 이일로 천세력 방석태 윤병호 윤정호			
교역자	부 목 사	김제호		
	전 도 사	이필래		
찬 양 대	교육전도사	송슬기 김선희		
	반 주 자	지 위 자	할 벨 루 야 : 김한나 호 산 나 : 김안나 시은 · 에 덴 : 최원지 엔 켈 : 이난수	
		오르간	심혜윤	
		피아노	김민지 하유리 김미희 최유경	
		클라리넷	박진숙 이난수	
	플룻	김민지		
솔 리 스톱	김안나 정애슬			
선 교 사	파송선교사	태 국 : 김정숙	이 집 트 : 김신숙	
		수 리 남 : 안석렬 이성옥	A X 국 : 김해월	
		미 국 : 김다니엘	A X 국 : 이분옥	
		미 국 : 최옥희	모 잠 비 크 : 홍두표 강순영	
협력선교사	태 국 : 박영성 정세미	태 국 : 박경환 이순연		
	멕시코 : 김홍기			
협력교회	제주 대광장교회, 즐거운교회, 아름다운교회.			
협력단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세계선교회(G.M.S.), 서울남노회 목양선교회, 소망교도소, 영등포시활화 중국세계선교회, 서울남노회 G.M.S.			

2021. 05. 30

“성도의 경건한 삶

다니엘 6장 3~14절

설교: 이진우 목사

성도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상 사람들과 달리 아무리 떨어져 먼지가 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알고도 모르고도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필요하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더 나아가 반복적인 실수와 넘어짐 속에서도 성도는 더욱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하여 노력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완전한 성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삼가 조심하며 은혜 가운데 거룩함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연약하여 쓰러지고 실패하고 실수하는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성도는 세상 가운데서

1. 고발할 거리가 없는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 참으로 다니엘은 지혜롭고 민첩해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다리오 왕에게 큰 신임을 받았 습니다. 세 명의 총리 중에서도 다니엘이 가장 뛰어나 왕의 사랑을 받았고 왕은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도 이렇게 높아지는 자가 있으면 그를 넘어뜨리기 위해 권모술수를 쓰며 음해하는 자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을 시기하는 무리가 그를 끌어내리기 위해 작당을 하고 고발할 거리를 찾아 나섭니다. 때론 떨어져 먼지 안나는 사람이 없다고들 할 정도로 권력을 가진 자가 권력을 남용하는 일은 과거나 오늘날에나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제거하려는 자들은 다니엘에게도 분명히 부정한 행위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사실이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다니엘을 고발한 근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업무에 유능할 뿐 아니라 사생활에도 흠잡을 것이 전혀 없는 순결하고도 경건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는 무엇보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허물을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앞에서 살아가기에 더군다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에 은밀한 중에도 죄를 멀리합니다. 이러한 다니엘의 경건한 삶을 모든 성도가 본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는 죄인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들로 세상 가운데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감을 통해 하나님께도 인정 받으며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살려면 무엇보다,

2. 세상과 신앙의 타협이 없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 다니엘에게 고발할 근거를 찾지 못하자 그의 대적들은 다니엘을 고발할 수 있는 새로운 법을 제정합니다. 그들은 다니엘을 고발하기 위해 하나님의 율법과 상충되는 법을 만들어 다니엘이 그 법을 어길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그 법은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어떠한 신에게든 기도하는 것을 금하는 것입니다. 이 법을 어기면 사자 굴에 던져 넣겠다는 처형 방법까지 명시했습니다. 다리오왕은 그들의 흉악한 의도를 알아채지 못해 순순히 조소에 왕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왕권이 바뀌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지금 다리오 왕은 무엇보다 수많은 민족과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왕권을 강화해야 했습니다. 이 왕권 강화의 방법으로 왕이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못하게 함으로 자신의 모든 신들 중의 신이라고 부각시켜 왕권을 강화하려는 방법으로 삼으려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기도는 멈추지 않았습니 다. 이러한 다니엘의 기도에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왕의 조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셋째, 그의 기도의 내용은 감사였습니다. 그들이 예상했던 대로 다니엘은 그 법을 알면서도 집에 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세 번씩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대적들의 의도를 알았지만 공개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림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것임을 드러냅니다. 어떠한 불이익이나 위협이 있다 해도 믿음의 길에서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경건의 삶은 성도에게 핍박을 주며 괴로움을 주기 마련입니다.

3. 성도가 경건의 삶을 살 때 세상의 핍박이 있습니다.

- 다니엘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고 바르게 살았기 때문입니 다. 다시 말해 다니엘의 정직함이 상대적으로 그들의 부정함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핍박합니다. 유난 떨지 말고 남들처럼 살라고 강요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삶의 길에 세상의 저항과 핍박이 있음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깨끗하게 경건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박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선한 일을 하시면서도 끊임없이 비방과 박해를 당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 셧듯이 성도는 진리를 위해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우며 하나님 나라와 진리를 위해 끊임없이 싸우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SINCE 1975

No. 47 - 23

2021. 06. 06.

대한예수교장로회

성 현 교 회

Sung - Hyeon Presbyterian Church

표어: “우리를 도우소서” [역대하 14장 11절]

목표: 1.진리 파수 2.천국일꾼 양성 3.민족 복음화 4.세계 선교

동산의 샘

A garden fountain

생수의 우물

A well of living

담 임 목 사	이 진 우
Senior Pastor	Yee, Jin Woo

● 0823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33마길 18(개봉동, 성현교회)

● 18, Gyeongin-ro33Ma-gil, Guro-gu, Seoul, Korea

● 교회사무실: 2613-2080 / 2683-2080

● 팩 스: 2689-1230

● 홈 페 이 지: www.sunghyeon.or.kr

